

# 상실한 부모님 치아, '임플란트 틀니'가 효율적 대안

## 건강 바로 알기 임플란트와 틀니

### 박정희 임플란트 의원 원장

지금의 치과계는 가히 임플란트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손기술이 좋고 습득이 빠른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임플란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이다.

외국 대다수 국가의 임플란트는 전문병원에서만 가능한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치과에서 시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이 많은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 보장, 비교적 저렴한 치료 비용과 관련이 있다.

◇틀니의 불편함=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비용이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틀니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틀니를 사술하지 않는 치과들도 증가하고 있다.

입안에 내 이처럼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잇몸 위에 얹어서 쓰는 틀니는 당연히 불편하다.

틀니를 쓰는 분들은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밤새 물에 담궈 놓았던 틀니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거려 제 위치에 끼워 넣는 것이다.

매번 식사 후에 죄지는 것도 아닌데 남들 볼까 몰래 화장실에 가서 틀니를 빼서 씻고 끼워 넣는다. 험거운 틀니는 그 식사마저도 힘들게 한다. '틀니가 말만 해도 빠

수술범위 작고 잇몸 덜 다쳐...틀니의 불편함 '한방에 해결'  
임플란트에 틀니 고정 시술 방법...식사의 즐거움도 두배로

지고 물만 마셔도 빠진다는 말을 주위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틀니라 해도 그 씹는 힘은 원래 내 치아들이 씹는 힘의 15~25% 정도라는 게 학계 정설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선택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틀니는 사라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첫 번째 이유는 비용이다. 보통 이가 하나도 없을 경우 틀니를 쓰지 않으려면 윗턱에는 8개, 아래턱에는 6개 정도 임플란트를 심는게 최소라고 여겨지고 있다.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개수가 더 많아지면 당연히 더 튼튼하고 자연치아에 가까워 질 것이기에 비용이 허락한다면 위 아래 합쳐서 스무 개까지도 할 수 있다.

임플란트가 아무리 비용이 저렴해진다 하더라도 틀니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이렇듯 여러 개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체 비용을 누구에게나 여전히 부담스럽다. 두 번째 이유는 전신 질환을 꼽을 수 있다.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어 임플란트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임플란트 수술방법의 발전과 임플란트 표면처리 기술의 발달로 기존보다는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전신질환, 골다공증 약의 장기 투약의 경우 등은 다수의 임플란트 수술에는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심미성의 회복은 틀니가 유리

하다.

잇몸 아래에서 치아의 뿌리를 담고 있는 뼈를 치조골이라고 하며, 이 치조골은 치아가 빠지게 되면 그 빠진 자리는 6개월 정도까지 뼈가 가능한 정도로 회복되고 그 후에는 서서히 흡수되기 시작한다. 그 흡수는 위턱과 아랫턱의 양상이 다르다. 아주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했던 고령의 환자들은 틀니를 뺀 상태일 때 코밑 윗입술 쪽은 쑥 끼고, 아래턱 끝은 원래 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으로 뺏겨져 튀어나와 보이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나오는 소위 마귀할멈의 얼굴을 떠올릴 때 생각되는 그런 얼굴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틀니를 쓰지 않는 임플란트만으로 본래 얼굴 형태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원래의 치조골과 그 위에 올라갈 치아형태를 만들기 위해 여러번의 치조골이식 수술과 잇몸수술이 필요하며 그 기간과 비용, 환자가 받을 통증등을 생각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흡수된 치조골, 잇몸, 치아를 한 덩어리로 복원해 위, 아래, 볼을 안에서 받쳐주어 얼굴 모양을 회복해주는 틀니가 이럴때는 꼭 필요하다. 이 세 번째 이유가 틀니가 사라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다.

◇임플란트 틀니=틀니를 쓸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틀니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가? 틀니를 좀 더 편하고 아프지 않게 쓸 수는 없을까? 좀 더 잘 씹을 수 없을까? 이런 물음의 대답은 임플란트에서



박정희 임플란트 의원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찾을 수 있다.

틀니에 적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결합해 쓰는 방법이 많이 개발됐고,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운 상황에 맞게 보다 더 작고 수술 후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틀니 전용으로 개발된 임플란트도 있다.

이런 임플란트는 수술 범위가 작고 치조골 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임플란트 수술이 어

려웠던 환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심어진 소수의 임플란트에 틀니를 자석이나 실리콘 단추 등을 이용해 고정시키는 방법이 '임플란트 틀니'이다. 물론 이 방법도 '틀니'이다.

매 식사 후나 휴식시간에는 빼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데 쑥쑥 빠지거나 입안에서 틀니가 돌아다니지 않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은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틀니가 항상 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잇몸이 다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어 틀니가 주던 통증도 많이 해소, 음식을 조금 더 세게 씹을 수 있어 씹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임플란트 틀니는 오랫동안 틀니의 불편함을 그냥 감수한 채 식사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환자들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동아시아인 당뇨병 유전적 원인 규명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네이처지 게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61개 신규 유전요인을 발굴, 이 분야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IF 43.07) 2020년 5월 호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인 대상 연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당뇨병 유전요인과 특성을 규명한 것이다.

기존 유전체연구의 약 80%는 서양인 중심으로 수행돼 동아시아인에 적용하는 경우 당뇨병 등 질병 예측의 정확도가 50% 수준까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유전체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번 연구는 규모면에서 서양인 대상 연구와 대등한 수준이다.

이번 연구 결과 동아시아인 당뇨와 관련된 61개의 유전요인을 새롭게 발굴했으며, 특히 알데히드 분해효소2(ALDH2) 유전자는 남성 특이적으로 당뇨병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래의학인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의 기반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분석한 동아시아인 대상 당뇨병 유전체연구 성과는 국내 유전체연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그 학술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다"고 전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패유 기원 카네이션 선물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환자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며 패유를 기원했다. 전남대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신은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병실에서 보내는 70세 이상의 입원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만성요통 레이저 임상시험 돌입

임상연구 대상자 모집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은 비특이적 만성요통에 대한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침전기 자극기(Ellise)의 파장별 통증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임상시험에는 동신대 한의과대학 나창수 교수 연구팀과 동신대광주한방병원 침구의학과 김재홍 교수 연구팀이 참여한다.

시뮬레이션과 표준화 교육 등을 통해 임상연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최종 논의한 뒤 임상연구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임상 시험은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 중 3개월 이상 비특이적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주

2회, 4주간 총 8회의 치료와 치료 종료 4주 후에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

참가자는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부담 없이 만성요통에 대한 Ellise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참가 문의는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062-350-7515)로 하면 된다.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김재홍 교수는 "한 의학과 현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한의융합제품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